

국립광주박물관 뉴스레터 제7호\_도자전시 특집호

# 아시아 도자문화

Gwangju National Museum Newsletter\_Asian Ceramic Culture



강진청자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부안청자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 CONTENTS

- 02 도자 전시 1  
아시아의 보물, 새로운[新] 안식처로[安]\_최명지
- 04 도자 전시 2  
분청사기\_장남원
- 05 도자 전시 3  
고려청자가마터 발굴성과전\_한정화
- 06 도자 전시 4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_조은정

- 07 도자 전시 5  
고려나파선 해남청자를 품다\_박예리
- 08 도자 전시 6  
고흥 분청사기, 덤벙으로 물들다\_맹세환
- 09 도자 전시 7  
조선도자, 히젠의 색을 입다\_박아연
- 10 국립광주박물관 소식
- 11 中文·日文 要約
- 12 English Abstract

기간일	2018년 3월 30일
발행일	2019년 9월 27일
발행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gwangju.museum.go.kr
기획·편집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문의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최명지 TEL 062-570-7036 FAX 062-570-7066 MAIL gnmcad@korea.kr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광주박물관으로 돌아온 신안해저문화재 맞이 기념전시를 소개한다.

# 아시아의 보물, 새로운[新] 안식처로[安]

Exhibition Welcoming the Arrival of Sinan Shipwreck Artifacts at Gwangju National Museum  
*Treasures of Asia Find a New Repository*

**최명지** 崔明智 Choi Myeongji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國立光州博物館 學藝研究士 Gwangju National Museum Curator  
adelita00@korea.kr

## 전시개요

전시기간 2019년 8월 20일(화)~2020년 12월 예정(도자실 신설 시까지)

장 소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2층 상설전시실

전시 품 신안해저문화재 700여 점 공개

## 신안해저문화재 밭굴과 국립광주박물관 건립

2019년 1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광주박물관으로 돌아온 17,000여 점의 신안해저문화재를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전시를 상설전시실 2층에 마련하였다. 국립광주박물관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신안해저문화재는 1975년 전남 신안군 중도 앞바다에서 신안선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듬해인 1976년부터 본격적인 수중발굴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양의 문화재를 바닷속 깊은 곳으로부터 건져 올렸다. 이 신안해저문화재를 보관, 연구, 전시하기 위하여 1978년 12월 국립광주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고, 그만큼이나 신안선 유물이 전남 지역과 광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신안선은 1323년에 선적된 물건들이 실려있었으며, 최대 길이 34m, 200톤 급의 14세기 최대 무역선이었다. 오늘날 귀중한 보물이 된 신안선에 실렸던 교역품 가운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단연 돋보이는 것은 도자기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개관 때부터 신안해저유물실(新安海底遺物室)을 마련하여 신안선과 문화재를 알려 왔다.

1978년 개관 당시에는 신안선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기 가운데 용천요(龍泉窯), 경덕진요(景德鎮窯), 진요(建窯) 등 대표적인 가마의 도자기 230여 점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1986년에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조사된 신안해저유물의 특별전시를 개최하였다. 이후,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신안실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광주박물관의 신안실은 도자실로 이전하여 축소 전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규모의 차이는 있었으나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신안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 전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을 위해 소장품을 모두 반환하며 국립광주박물관 신안실의 문을 닫은 후 2017년부터는 900여

1978년 개관 당시 신안해저유물실 전시

↑ 용천요(龍泉窯)

↓ 경덕진요(景德鎮窯)



## 도자 전시 1 Exhibition



← 다양한 종류의 신안선 도자기  
→ 다양한 크기의 신안선 도기호



← 용천요 청자 모란무늬  
큰 꽃병

점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져 왔다.

올해 1월에는 핵심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안해저문화재 중 도자기 17,000여 점을 이관 받았으며, 그 중 700여 점을 8월 20일부터 공개했다.

### 신안선의 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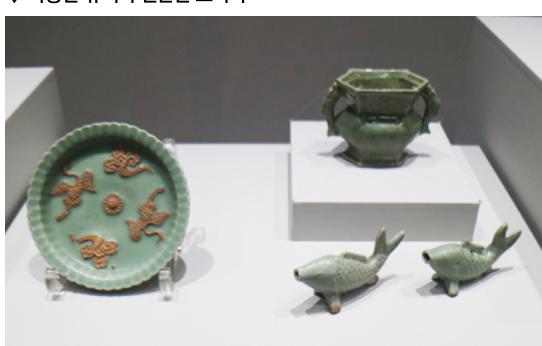
이번 상설전시는 ‘신안선의 도자기’라는 대주제로 구성되었다. 14세기 한국 고려(高麗), 중국 원(元), 일본 가마쿠라[鎌倉]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와 이들이 공유한 동아시아 문화를 도자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며, 신안문화재에서 드러나는 중세 동아시아의 공통된 키워드인 ‘차 문화’, ‘꽃’, ‘향’과 함께 도자기에 나타난 색과 문양, 운송과 용도에 대해 조명하여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신안선에 담긴 도자기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시대의 문화 기호를 읽는다. 신안선에서 확인된 다양한 찻잔, 향로, 꽃병, 수반, 화분 등의 도자기는 당시 일본 상류층인 무사, 귀족, 승려들 사이에서 차를 마시고, 향을 피우고, 꽃을 구경하는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며, 나아가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취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부와 3부는 당시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대량으로 수출되던 최상의 상품이었던 중국 도자기의 유색과 문양을 살펴본다. 신안선에서 나온 도자기들은 다양한 유색(釉色)을 보이는데 청자(青磁), 청백자(青白磁), 백자(白磁), 흑유(黑釉) 자기, 백탁유(白濁釉) 자기, 백지흑화(白地黑花) 자기, 갈유(褐釉) 자기 등으로 중국의 생산 지역에 따라 같은 백자나, 흑유 자기라도 다른 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양은 크게 용이나 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 외에도 화훼문(花卉文), 기하문(幾何文), 인물문(人物文), 동물문(動物文)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어 그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4부에서는 신안선에서 확인된 항아리가 수출 목적 이외에도 포장용기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상설전시는 신안해저문화재 이관을 기념하는 전시이자, 2020년 신설 예정인 도자실에 관람객이 선호하는 전시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신안해저문화재가 최초로 발견된 1975년 8월 20일에 맞춰 시작하는 이번 시범전시는 관람객들이 어떤 전시기법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갖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관람객 친화형 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전시는 일부 전시품을 바꿔가며 도자실이 신설되는 2020년 하반기까지 계속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 다양한 문양의 신안선 도자기  
↓ 다양한 유색의 신안선 도자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장남원관장이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3주년 기념 소장품 특별전을 소개한다.



↑ '내설내膽' 글자가 있는 분청사기  
국화무늬 접시(이화여대박물관), 지름19.2cm

분청사기 상감 모란당초무늬 항아리, 우동리 수습복원편(이화여대박물관), 높이 40.7cm ←  
분청사기 상감연화무늬 편병(이화여대박물관), 높이 28.4cm →

# 분청사기

Buncheong Ware

장남원 張南原 Jang Namwon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관장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館長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Director celadon63@ewha.ac.kr

## 전시개요

전시기간 2019년 5월30일(목)~2019년 12월 31일(화)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

전 시 품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과 대여유물 총 100여 점과 더불어 1958년 박물관에 입수된 전북 부안군 우동리 가마터 분청사기 수습품 200여 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2019년 5월 개교 133주년을 기념하여 소장품을 중심으로 <분청사기> 특별전을 개막했다. 전시에서는 분청사기 상감 유로문 매병, 분청사기 선덕10년명 지석, 분청사기 인화문 '경승부'명 접시, 분청사기 인화문 '경주장홍고'명 항아리, 분청사기 철화 모란문 병 등 여러 장식기법과 기종을 망라한 박물관 소장품과 함께 1958년 박물관에 입수된 전라북도 부안군 우동리 파편과 복원품을 국립광주박물관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대여유물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전시들이 분청사기의 미학적 아름다움을 조망하는 관점으로 주목받아왔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분청사기의 개념부터 제작 제도, 기법과 조형미, 근대기의 전승 현황 등을 담아 미술품으로서의 도자기를 넘어 한 시대의 경제적 산물로

서, 제도적 변화 아래 주문되었던 생산품으로서, 그리고 과거의 전통을 대변하는 기념품으로서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다.

전시는 6부로 구성했으며 첫 공간은 근대기 분청사기에서 시작한다. 다기와 기념품 등으로 일본인들에게 애호되면서 골동품 거래와 재현품 제작으로 나타났던 삼화고려소, 한양고려소와 한락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상감분청사기를 중심으로 고려말 조선초의 정황과 의미를 살펴보았고, 3부에서는 왕실과 관청의 공납과 진상의 제도변화와 함께 규범화되면서 변화하는 정교한 인화분청사기의 조형과 제작기법을 보여준다. 4부에서는 지방 특산물로 발달한 지역색 강한 분청사기들을 소개하여 분장기법과 박지, 철화장식 등으로 개성 넘치는 조형미를 볼 수 있다. 5부는 미디어 아트 관객 참여공간으로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에 아이콘이나 나타나면서 소리와 함께 분청사기 인화문의 특성을 느낄수 있다. 마지막은 부안 우동리 수습 도편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전시장 곳곳에는 분청사기의 다양한 무늬를 도안화한 포토존과 인화기법 체험공간, 컬러링 코너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쉬어가며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 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2019 상반기에는 특강이 진행되었고, 10월 10일 저녁 8시부터는 박물관 외벽을 화면으로 분청사기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미디어 파사드 행사도 시연될 예정이다.

## 도자 전시 3 Exhibition

2015~2018년 까지 부안 유천리 지역을 조사하여 발굴된 진귀한 고려청자 출토품을 전시한 부안청자박물관의 특별전을 소개한다.



1.3호 건물지 출토 명문기와 ←  
청자 상감 물가풍경무늬 병 편 →

# 부안 유천리 12호 고려청자가마터 발굴성과전

*Excavation Achievements of the Goryeo Celadon Site, Buan Yucheon-ri No. 12*

한정화 韓貞華 Han Junghwa

부안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 扶安青瓷博物館 學藝研究士 Buan Celadon Museum Curator  
dalma90@hanmail.net

## 전시개요

전시기간 2019년 4월 30일(화)~2019년 10월 27일(일)

장 소 부안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 품 전북 부안 유천리 12호 고려청자가마터 발굴품 및 완형 비교품 등 200여 점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柳川里)는 고려청자의 메카로 발길 닿는 곳마다 비색으로 반짝이는 청자파편이 무수히 존재하는 곳이다. 이 중에서 유천리 3구역 12호 청자가마터 일대는 유천리 고려청자의 중심지로써 부안군에서는 3구역 일대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종합적인 복원·정비를 위하여 2015~2018년까지 문화재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시는 부안 유천리 12호 청자가마터 일대에서 발굴 출토된 진귀한 고려청자 등 다양한 유물과 유적의 학술 조사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적 내에서 조사된 유구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와를 얹은 고려시대 건물지 여례 동과 부속시설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중 1호와 3호 건물지는 요업을 위한 작업장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관(官)’, ‘갑동(甲棟)’ 등의 글자가 새겨진 암기와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안 유천리 12호 청자가마터 일대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특징별로 발굴유물 파편과 완형유물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였다.

출토유물의 특징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용

과 봉황문양이 새겨진 대매병·타일·합·향로·찻잔·발 등의 다양한 청자가 제작되었다. 세계 최초로 산화구리 안료로 선홍색을 표현한 동화·동채 청자, 은은한 미색 백자에 흑상감·청자태토상감으로 봉황이나 모란·국화 문양을 섬세하게 장식한 고려백자, 베드내 마을(=유천리柳川里)의 자연풍광을 담은 물새와 갈대, 베드나무가 어우러진 물가풍경문양 청자, 어스름한 회색 바탕흙 위의 섬세한 상감문양과 신비로운 비색(翡色)이 조화를 이룬 최고급 상감청자 등은 부안 고려자기의 독특한 풍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려중기 청자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부안고려청자는 바닷길을 통해 수도 개경과 전국에 유통되었으며, 대표적인 곳으로 고려 황궁인 개성 만월대, 고려 왕과 왕비의릉, 강화 총성과 주변 건물지, 고려시대 국립숙박시설인 파주 혜음원지 등 황실과 국가 중요시설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이번 전시는 명성 높은 부안 고려청자의 대표지인 유천리 12호 청자가마터 일대에서 출토된 아름다운 비색 상감청자 편을 비롯하여 유약을 실험한 명문파편과 온전한 형태의 명품 고려자기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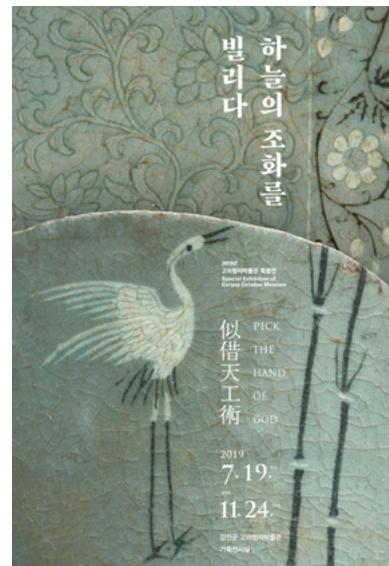
올해 이루어진 강진 사당리 청자가마터 발굴품과 1914년 최초 발굴품을 비교하여 전시한 강진 청자박물관의 특별전을 소개한다.

#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似借天工術

*Pick the Hand of God*

조은정 曺銀精 Cho Eunjung

고려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 高麗青瓷博物館 學藝研究士 Goryeo Celadon Museum Curator  
cej3722@korea.kr



## 전시개요

전시기간 2019년 7월 19일(금)~2019년 11월 24일(일)

장 소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

전 시 품 전남 강진 청자가마터 일제강점기와 2019년 발굴조사 출토품 등 150여 점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2019년 7월 19일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특별전을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올해부터 강진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진 청자가마터 발굴조사를 계기로, 특히 고려청자박물관 주변 청자가마터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기에 최초의 발굴과 출토품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100여 년 전인 1914년 6월 매일신보(毎日申報)에는 강진 청자가마터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며 발굴 장면과 출토된 청자 사진이 실린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이 그 해 4월에 실시된 발굴조사의 출토품을 창덕궁 주합루(宙合樓)에 진열하고 신문기자들을 초청해 공개하며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수년 전부터 강진 청자가마터 발굴조사와 관련한 오래된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에 1914년에 처음 발굴조사가 이뤄진 뒤 1928년과 1938년에 두 차례 더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하였고, 발굴조사 관련 사진과 도면 등을 정리하여 이번 특별전을 통해 청자유물과 함께 공개했다.

이번 특별전에는 1910~1930년대에 조사된 청자와 함께 최근 고려청자박물관 서남쪽 발굴조사 출토품과 사당리20호 출토품도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또한 개성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도 12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14년 발굴된 유물들은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당전(堂前), 미산(尾山), 관찰산(觀察山) 등 마을이나 산 이름을 크게 써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유물중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와 문양의 청자가 많다. 부릅뜬 눈만 부각시켜 조각한 황이(黃彝)를 비롯해 정교한 국화와 연꽃 장식의 받침[臺]은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제기로 이번 특별전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유물이다. 고려시대 초기뿐만 아니라 중기에도 보(簾), 궤(簋), 상준(象尊), 희준(犧尊), 황이(黃彝) 등과 같은

제기를 청자로 만들어 사용했음을 증명된 것이다. 제기는 당시 고려가 중국 송나라의 제기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 제기도(祭器圖)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학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안쪽에 공간 분할이 되어 있는 필통, 팔각형의 접시에 문양을 찍어내는 도범(陶范), 처음 보는 장신구와 옷을 입은 아이 등 강진 청자가마터가 고려청자의 보고(寶庫)임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청자들이 강진에서 만 들어졌음을 증명하는 청자 유물들도 전시되고 있다. 복승아를 들고 있는 인물 모양의 주자(국보 제167호), 물오리가 노니는 연못 풍경을 조각한 정병(보물 제344호), 울창한 대숲을 연상시키는 죽질문병(국보 제169호) 등이 강진 청자가마터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청자의 본고장인 강진에서 열리는 전시인 만큼 전시된 청자의 기술적 수준은 이규보(李奎報)가 하늘의 조화를 빌려와 만들지 않았을까하고 감탄했을 만하다. 올해 하반기에도 강진 청자가마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고려청자 연구의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출토되리라 기대한다.

## 도자 전시 5 Exhibition

해남지역 청자를 생산에서 운송,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전시를 소개한다.

#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

*Haenam Celadon from Goryeo Shipwrecks*



박예리 朴禮理 Park Yeri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國立海洋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士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Curator  
flora@korea.kr

## 전시개요

전시기간 2019년 7월 9일(화)~2019년 10월 13일(일)

장 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교류실

전 시 품 군산 십이동파도선, 완도선, 태안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해남청자 2,500여 점

자연의 바다와 흙, 불, 물, 그리고 고려 장인의 정성으로 빚어낸 해남청자의 멋과 고려시대 3백여 년의 발자취를 담은 특별전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특별전은 오늘날 고려 비색청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강진청자와 같이 해남지역의 녹갈 빛 청자를 해남청자라는 브랜드로 명명함으로서, 이러한 해남유형의 청자가 고려시대 생활문화 그리고 고려 도자사에서 하나의 축을 이루었음을 재발견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해남청자의 생산에서 운송과 유통, 그리고 다양한 소비 양상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한 첫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40여 년간 바다와 육지에서 이뤄진 해남청자 유적발굴조사와 연구 성과를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1부 서남해 바닷길, 해남청자를 품은 고려난파선, 2부는 해남청자의 바닷길

유통, 3부는 고려의 소박한 그릇, 해남청자, 4부는 고려 사람들의 삶에 스며든 해남청자 등으로 모두 4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1부와 2부에서는 800~1000년 전 해난사고로 바닷 속에 묻힌 난파선의 해남청자를 만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수중 발굴조사 이후 15년만에 공개되는 해남청자운반선 군산 십이동파도선(11~12세기)을 비롯하여 완도선(11~12세기)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이 가운데 십이동파도선에는 청자 실물 2,400점을 재현함으로서 바닷속 난파선과 도자기 선적 상태를 보다 생동감있게 연출하였으며, 진열장 내부의 입체적인 전시 연출을 통해 숨겨진 해남청자의 멋을 한껏 드러냈다.

3부와 4부를 통해 관람객들은 해남청자의 대표적인 장식기법인 ‘철화무늬’가 그려진 타악기 ‘장고’, 꽃장식도구 ‘화분’, 생활도구 ‘매병’ ‘반구병’ ‘대반’ ‘합’를 만나며 고려사람들의 미감과 오늘날 우리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도자기 문화의 보편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닷속 난파선의 도자기 선적 상태 전시 모습 ←  
십이동파도선 도자기의 전시 모습 →



고흥 운대리 지역에서 발굴된 분청사기를 한자리에 모은 고흥분청문화관의 특별전을 소개한다.

# 고흥 분청사기, 덤벙으로 물들다

*Buncheong Ware of Goheung Dipped in White Slip*



## 맹세환 孟洗煥 Meang Sehwan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학예연구사 高興粉青文化博物館 學藝研究士  
Buncheong Culture Museum Of Goheung Curator  
msh3133@korea.kr

분청사기 귀얄무늬 항아리 →  
(고흥 운대리 14호 출토)

고흥 운대리 1호 가마 출토품 일괄 ↑  
고흥 운대리 가마 출토품 일괄 ↓



## 전시개요

전시기간 2019년 10월 17일(목)~2019년 12월 29일(일)

장 소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층)

전 시 품 전남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 출토품 약 380여 점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2019년 10월 31일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발굴된 도자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고흥 운대리 가마터 발굴 성과전 <고흥 분청사기, 덤벙으로 물들다>을 개최한다. 고흥 운대리 일대에는 청자가마터 5기, 분청사기 가마터 27기(1호~27호)가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청사기 가마터 8기(1호, 2호, 7호, 14호, 15호, 18호, 26호, 27호)가 발굴조사 되었다.

이 지역에서 발굴 된 분청사기 가마터의 경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소장·전시되고 있었으나, 이번 전시를 통해 본향인 고흥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는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의 출현에서부터 쇠퇴에 이르기까지 각 가마의 특징과 변화과정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다.

고흥 운대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분청사는 분청사기의 출현에서 쇠퇴에 이르는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 전시는 가마터 발굴유물 뿐만이 아니라, 발굴조사단의 현장조사 모습과 발굴 조사 중인 가마의 전경 등을 사진에 담아 전시함으로써 발굴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발굴된 유물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청사기의 도형에 직접 문양을 찍어 보는 체험도 참여 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이외에 박물관에서는 고흥 운대리 발굴성과전과 더불어 '제2회 분청사기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고, 2019년 11월 1일 분청문화박물관 강당에서 고흥 운대리 분장 분청사기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운대리 분청사기의 최근 발굴조사 및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분장기법의 과학적 분석과 분장 분청사기와 백자와의 비교를 통해 운대리 분청사기의 성격에 관해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개막식이 있는 주 10월 30일에는 야간 개관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진행될 것이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 도자 전시 7 Exhibition

일본 히젠[肥前] 지역에서 제작된 도자기를 전시한 국립진주박물관의 특별전을 소개한다.

# 조선도자, 히젠의 색을 입다

*HIZEN: The Flowering of Korean Ceramic Culture in Japan*



박아연 Park Ahyeon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國立晉州博物館 學藝研究士

Jinju National Museum Curator

aypark3@korea.kr

## 전시개요

전시기간 2019년 10월 1일(화)~2019년 12월 8일(일)

장 소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 품 꽃과 새무늬 육각항아리 등 200여 점

국립진주박물관은 한일문화교류 특별전으로 <조선도자, 히젠肥前의 색을 입다>를 개막한다.

히젠은 현재 일본 규슈 북부의 사가현[佐賀縣]과 나가사키현[長崎縣] 일대에 해당하는 옛 지명으로, 일본 자기의 발상지이자 도자기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일본의 도자문화는 임진왜란 이후 히젠을 중심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여 17세기 중반에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각지로 수출되었다. 히젠 자기는 아리타[有田·자기 생산지]나 이마리[伊万里·자기 수출항]의 이름을 따서 '아리타 자기', '이마리 자기'로 불리기도 했다.

히젠에서 꽃핀 일본의 도자문화는 조선의 영향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의 영향을 받아 도기 제작이 시작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히젠으로 끌려간 조선 장인에 의해 1616년 최초의 자기가 생산되었다. 히젠 자기는 다양한 색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였지만, 그 기원은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조선 도자문화와 그것을 만든 조선 장인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도자가 일본 도자문화에 끼친 영향과 조선 도자에 히젠의 색이 어떻게 담겨지고 발전해 나갔는지 살펴보자 하였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우선 전시장 입구에서는 3D 프린팅으로 구현한 접시와 벽면을 이용한 프로젝션 맵핑 영상이 상영된다. 이를 통하여 일본도자의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을 표현하였다. 1부는 일본 다도문화의 성행으로 인해 임진왜란 전부터 시작된 조선 도자의 수출과 조선 장인들이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2부는 임진왜란 당시 끌려간 조선 장인들에 의해 일본의 자기문화가 탄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식으로 성장·발전하여 유럽으로까지 수출된 일본 도자문화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3부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이 다도에 사용할 다기를 조선에 주문하였던 상황과, 이후 17세기 말부터 일본 도자가 발전하면서 거꾸

꽃과 새무늬 육각항아리, 규슈도자문화관 ↑  
동백나무무늬 접시, 구경 20cm, 규슈도자문화관 ↓



로 조선에 일본도자가 수입되고, 조선 백자에 일본 자기가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에는 전시품 중에서 명품을 선별하여 일본도자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상실에서는 아리타 자기가 탄생되어 400년 넘게 이어지는 모습을 담은 내용을 상영하여 관람객들이 편안히 휴식하면서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일본도자 특별전이다. 도자사 연구자 뿐 아니라, 도자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일본 도자문화와 한·일 문화교류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특별전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 네 번째 전시(6·25전쟁 및 4·19혁명) 개최

**전시기간** 2019.9.23.(월)~10.27.(일)

**전시장소**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1층 홀

**입장료** 무료

무운장구 태극기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태극기),  
1950년대, 86.6×6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6·25전쟁’ 주제 코너에서는 전쟁의 발발에서부터 정전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는 자료와 사진을 공개한다. 북한군 남침, 인천 상륙, 1·4후퇴 피난 행렬, 어린이의 시선으로 본 전쟁, 정전협정 관련 자료 등을 통해 6·25 전쟁의 의미를 새기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4·19혁명’ 주제 코너에서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저항한 광주의 의거를 비롯하여 4·19혁명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광주 ‘곡랫민주주의 장송’ 봉기, 3·15 의거, 실종된 김주열 열사 시신 발견, 4·18 고려대학교 학생 피습 사건, 4·19혁명, 그리고 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한다.

이번 6·25전쟁과 4·19혁명 전시를 통해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희망과 새 힘을 안겨준 시대정신을 느끼고,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062\_570\_7053

## 근대의 전통화가들 - 호남과 서울

**전시기간** 2019.9.27.(금)~11.24.(일)

**전시장소**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2층 기획전시실

**입장료** 무료



국립광주박물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근대의 전통화화를 재조명하는 특별전 <근대의 전통화가들-호남과 서울>을 개최한다.

조선시대 전통화화의 역사는 도읍인 ‘한양’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개항 후 급격히 밀려든 근대 문명의 영향으로 전통화화가 변화할 때에도 그 변화의 중심지는 ‘서울’이었다. 이처럼 우리 회화의 역사는 ‘서울’을 무대로 전개되어 온 듯하지만, 지방 미술의 흐름을 간과한다면 한국미술사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통화화’라면, 서울만큼 중요한 무대가 바로 ‘호남’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항 이후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활동한 전통화가 소림(小琳) 조석진(趙錫晉),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그리고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의 작품을, 그들과 동년배인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 미산(米山) 허형(許鑾), 그리고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의 호남 지역 활약상과 나란히 제시한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호남과 서울 두 지역으로 나뉘어 활동한 그들의 인생은 의도치 않은 곳에서 교차하며 닮은 듯 닮지 않은 저마다의 예술 세계를 형성하였다.

전시는 6인의 전통화가들을 동년배끼리 짹지어 서로의 인생과 예술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1장 ‘전통과 개화의 경계 위에 선 화가들’에서 채용신(1850년생)과 조석진(1853년생)의 인생과 작품을 살펴보고, 다음 2장 ‘화가들을 이끈 화가들’에서는 서울과 호남에서 각각의 미술가 단체를 이끌며 차세대 교육에 기여한 안중식(1861년생)과 허형(1862년생)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장 ‘개화기 새로운 무대 위의 화가들’에서는 허백련(1891년생)과 김은호(1892년생)가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초기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国立光州博物馆新闻通讯 第七号

# 亚洲陶瓷文化

## 要約

**02 陶瓷展览 1: 国立光州博物馆《新安海底文物重返纪念展》****"亚洲珍宝重返新安"**

国立光州博物馆学艺研究士崔明智介绍“亚洲珍宝重返新安”——新安海底文物重返纪念展。其间在首尔国立中央博物馆展出的1.7万件新安海底文物于2019年1月重回国立光州博物馆，为纪念文物迁回，本馆以试点展的形式在二层常设展览室展出700余件新岛新安文物。考虑到2020年将新设的陶瓷展览室，光州博物馆正在积极尝试举办观展人友好型展览，不断满足观展人需求。陶瓷展览室将于2020年下半年开放，此前本次展览将更换部分展品继续进行。

**04 陶瓷展览 2: 梨花女子大学博物馆2019年藏品特展《粉青沙器》**

梨花女子大学博物馆馆长张南原介绍于2019年5月举行的建校133周年纪念藏品特展《粉青沙器》。展品网罗梨花女子大学博物馆藏品与国立光州博物馆等部分文艺机构出借的100余件文物、1958年入馆的全罗北道扶安郡牛东里出土碎片与复原品共200余件。

**05 陶瓷展览 3: 扶安青瓷博物馆2019年特展《扶安柳川里12号高丽青瓷窑址发掘成果展》**

扶安青瓷博物馆学艺研究士韩贞华介绍《扶安柳川里12号高丽青瓷窑址发掘成果展》。展览介绍于扶安柳川里12号高丽青瓷窑址发掘出土的高丽青瓷等多样文物与对该遗址的学术调查成就，展出扶安柳川里12号高丽青瓷窑址发掘文物及碗形可比文物等200余件展品。

**06 陶瓷展览 4: 高丽青瓷博物馆2019年特展《巧夺天工》**

高丽青瓷博物馆学艺研究士曹银精介绍高丽青瓷博物馆策划举行的高丽青瓷展览——《巧夺天工》。自年起其所在地全罗南道康津郡启动康津青瓷窑址发掘调查，以此为契机其周围其他的康津窑址也受到格外重视。由此，展览介绍最初的研发经过与出土品，展出康津青瓷窑址在日帝支配时期与2019年发掘调查出土品等150余件展品。

**07 陶瓷展览 5: 國立海洋文化財研究所2019年特展《高丽沉船出水海南青瓷》**

国立海洋研究所学艺研究士朴礼理介绍《高丽沉船出水海南青瓷展》。展览首次全面介绍海南青瓷的生产、运输、流通与多样消费面貌等内容，展出在过去40多年里陆海两地进行的海南青瓷遗址发掘调查情况与其研究成果，以及群山十二东波船、莞島船、泰安1号船出水的两千五百余件海南青瓷。

**08 陶瓷展览 6: 高兴云垈里粉青沙器窑址发掘成果展《高兴粉青沙器》**

位于全罗南道高兴郡的高兴粉青文化博物馆学艺研究士孟洗煥介绍云垈里粉青沙器窑址发掘成果展《高兴粉青沙器》。高兴云垈里一带密布有27座（1号至27号）粉青沙器窑址，截至目前已对八座窑址（1号、2号、7号、15号、18号、26号、27号）进行了发掘调查。本次展览中除了出土于窑址的文物以外，还介绍发掘调查现场场景、发掘调查中的窑址全景照片，帮助观展人一目了然地理解窑址发掘过程。

**09 陶瓷展览 7: 国立晋州博物馆2019年韩日文化交流特展《朝鲜陶瓷身着日本肥前之色》**

国立晋州博物馆学艺研究士朴娥延介绍《朝鲜陶瓷身着日本肥前之色展》。这是在国内首次举行的日本陶瓷特展，介绍朝鲜陶瓷给日本陶瓷文化带来的影响，以及朝鲜陶瓷如何融入到日本江户幕府时期的肥前藩、其发展与演变过程。

**10 国立光州博物馆动态**

特别展览《大韩民国100年，改变历史的十大场面》第四批展览（六二五韩国战争及四一九革命）

为纪念三一运动、大韩民国临时政府成立一百周年，国立光州博物馆举行《大韩民国100年，改变历史的十大场面》第四批展览，介绍上世纪50至60年代主要事件中的“六二五韩国战争”与“四一九革命”。

特别展览《近代的传统画家，湖南与首尔》

国立光州博物馆为纪念大韩民国政府成立一百周年，举行特别展览《近代的传统画家，湖南与首尔》，探讨韩国近代的传统绘画。本次展览介绍自韩国首次与国外通商至20世纪上半期在首尔活跃的传统画家的作品，以及与他们年龄相仿的湖南地区画家的作品。

## 国立光州博物馆ニュースレター第7号

# アジア陶磁文化

## 要約

**02 陶磁展示1: 国立光州博物馆新安海底文化財お迎え記念展示-アジアの宝物、新しい安息所へ-**

崔明智・国立光州博物馆学芸研究士が新安海底文化財お迎え記念展示「アジアの宝物、新しい安息所へ」を紹介する。2019年1月国立中央博物館から国立光州博物館に戻ってきた17,000余点の新安海底文化財移管を記念し、700余点の遺物を常設展示館2階に展示した。本展示は、2020年新設予定である陶磁室に新しい展示技法を適用するための過程として、陶磁室が新設される2020年度の下半期まで続ける予定である。

**04 陶磁展示2: 梨花女子大学博物館2019年所蔵品特別展示「粉青沙器」**

張南原・梨花女子大学博物館館長が2019年5月開校133周年の記念して開催した所蔵品特別展「粉青沙器」を紹介する。今回の展示では、梨花女子大学博物館所蔵品と共に、国立光州博物館をはじめ色々な博物館からの貸与品100余点、そして1958年梨花女子大学博物館が入手した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牛東里から出土したの陶磁器破片と修復品200余点を公開する。

**05 陶磁展示3: 扶安青瓷博物館2019年特別展示「扶安柳川里12号高麗青磁窯跡発掘成果展」**

韓貞華・扶安青瓷博物館学芸研究士が「扶安柳川里12号高麗青磁窯跡発掘成果展」を紹介する。今回の展示は扶安柳川里12号窯跡から出土された珍しい高麗青磁など、多様な遺物と遺跡の発掘調査成果を見せるために設けられ、柳川里12号高麗青磁窯跡発掘遺物及び比較遺物など200余点を公開した。

**06 陶磁展示4: 高麗青瓷博物館2019年特別展示「天の造化を借りる-似借天工術」**

曹銀精・高麗青瓷博物館学芸研究士が特別展示「天の造化を借りる-似借天工術」を紹介する。今回の展示は高麗青瓷博物館最初の発掘と出土品はどの様なものだったのかを見せるための展示である。康津郡の青磁窯跡の日帝強占期の出土品、そして2019年の出土品など150余点を紹介する。

**07 陶磁展示5: 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2019年特別展示「高麗沈没船、海南青磁を抱く」**

朴禮理・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学芸研究士が特別展示「高麗沈没船、海南青磁を秘める」を紹介する。海南青磁の生産から運送・流通、そして多様な消費様子までを総合的に紹介した始めての展示である。過去40年間海と陸地で行われた海南青磁遺跡の発掘調査と研究成果、群山の十二東波船、莞島船、泰安マド1号船から出水された海南青磁2,500余点を紹介する。

**08 陶磁展示6: 高興雲垈里粉青沙器窯跡発掘成果展示「高興の粉青沙器、ドンボンに染める」**

孟洗煥・高興粉青文化博物館学芸研究士が特別展示「高興の粉青沙器、ドンボンに染める」を紹介する。高興雲垈里には粉青沙器窯跡27個が密集して分布し、今まで分青磁器窯跡8個（1・2・7・14・15・18・26・27号）が発掘調査された。

**09 陶磁展示7: 国立晋州博物館2019年韓日文化交流特別展示「朝鮮陶磁、肥前の色をまとう」**

朴娥延・国立晋州博物館学芸研究士が特別展示「朝鮮陶磁、肥前の色をまとう」を紹介する。今回の展示では、朝鮮陶磁器が日本の陶磁器文化に及ぼした影響と、朝鮮陶磁器が肥前陶磁器からどの様な影響を受けたのかを明確にする展示として、国内初めての日本陶磁器の特別展示である。

**10 国立光州博物館ニュース**

特別展示「大韓民国100年、歴史を変えた10場面」4次展示「6・25戦争と4・19革命」国立光州博物館は3・1独立運動及び大韓民国臨時政府樹立100周年を記念し、「大韓民国100年、歴史を変えた10場面」4次展示を開催する。今回の展示は1950-60年代の重要な事件の中、6・25戦争と4・19革命について語る。

特別展示「近代の伝統画家たち-湖南とソウル」

国立光州博物館は大韓民国臨時政府樹立100周年を迎え、近代の伝統絵画を再び評価する特別展示「近代の伝統画家たち-湖南とソウル」を開催する。今回の展示では、開港後から20世紀前半に至るまで、ソウルで活躍した伝統画家作品を、同じ時代の湖南で活躍した伝統画家作品を並びに紹介する。

## Gwangju National Museum Newsletter No.7

# Asian Ceramic Culture

### ABSTRACT

- 02 **1 Exhibition** *Exhibition Welcoming the Arrival of Sinan Shipwreck Artifacts at Gwangju National Museum Treasures of Asia Find a New Repository*  
Choi Myeongji, a curator of Gwangju National Museum, introduces *Treasures of Asia Find a New Repository*, an exhibition organized to commemorate the transfer of the relics discovered from Sinan Shipwreck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o Gwangju National Museum. More than 17,000 items were relocated in January 2019, and 700 of them are now on display in the permanent gallery on the second floor of the Gwangju National Museum. Opened to the public on August 20, 2019, this exhibition was inaugurated on the anniversary of the discovery of the shipwreck (August 20, 1975). Another particularity of the exhibition is that it adopted a visitor-friendly display. In fact, the exhibition serves as an opportunity to test out a display technique that is to be utilized in the new ceramics gallery scheduled for opening in 2020. The exhibition will run through the second half of 2020 with occasional changes in display.
- 04 **2 Exhibition** *2019 Special Collection Exhibi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Buncheong Ware*  
Director Jang Namwon of th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introduces *Buncheong Ware*, a special exhibition opened in May 2019 to mark the 133th anniversary of the school's foundation. This comprehensive exhibition features buncheong ware of various form and decorative techniques. Including 100 items from the buncheong ware collection of th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and those loaned from other institutions such as Gwangju National Museum, the exhibition presents 200 pieces of restored works and shards from Udong-ri in Buan-gun, Jeollabuk-do Province that were acquired by the museum in 1958.
- 05 **3 Exhibition** *2019 Special Exhibition of Buan Celadon Museum Excavation Achievements of the Goryeo Celadon Site, Buan Yucheon-ri No. 12*  
Han Jeonghwa, a curator of Buan Celadon Museum, introduces the exhibition, *Excavation Achievements of the Goryeo Celadon Site, Yucheon-ri No. 12* in Buan. This exhibition was organized with the aim of presenting the achievements obtained from the excavation of the Goryeo celadon kiln site of Yucheon-ri No. 12 in Buan including rare examples of Goryeo celadon and the academic pursuits of the research on the site. The exhibition features more than 200 pieces of ceramics ranging from the ceramics discovered from the kiln site and intact examples for comparison.
- 06 **4 Exhibition** *2019 Special Exhibition of Goryeo Celadon Museum Pick the Hand of God*  
Goryeo Celadon Museum curator Cho Eunjung presents the exhibition *Pick the Hand of God*. Inspired by the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of celadon kiln sites in Gangjin led by Gangjin County this year and the recen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celadon kiln sites near the museum, this exhibition reexamines the first excavation of Ganjin kiln site and its recoveries. Over 150 items uncovered from the excavations of the sites in Gangjin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in 2019 are on display.
- 07 **5 Exhibition** *2019 Special Exhibi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Haenam Celadon from Goryeo Shipwrecks*  
Park Yeri, a curator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introduces *Haenam Celadon from Goryeo Shipwrecks*, the first exhibition to comprehensively investigation on Haenam celadon from its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he exhibition showcases more than 2,500 pieces of Haenam celadon discovered over the past four decades through excavations and researches conducted on both sea and land and moreover those recovered from the Sibidongpado Shipwreck, Wando Shipwreck, and Taean-Mado Shipwreck No. 1.
- 08 **6 Exhibition** *Exhibition Showcasing the Excavation Achievements of the Buncheong Kiln Sites in Undae-ri, Goheung Buncheong Ware of Goheung Dipped in White Slip*  
Curator of the Buncheong Culture Museum of Goheung, Meang Se-hwan, presents *Buncheong Ware of Goheung Dipped in White Slip*. There are 27 buncheong ware kiln sites in the Undae-ri region in Goheung, and to date, eight of them (No. 1, 2, 7, 14, 15, 18, 26, and 27) have been excavated. The exhibition offers an overview of the excavation process by presenting photographs of the survey and excavation of the kilns, together with recovered relics.
- 09 **7 Exhibition** *2019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of Jinju National Museum HIZEN: The Flowering of Korean Ceramic Culture in Japan*  
Jinju National Museum curator, Park Ah-yeon, introduces *HIZEN: The Flowering of Korean Ceramic Culture in Japan*. Organized with the aim of exploring the influence of Joseon ceramics on Japan with a particular focus on Hizen porcelains, this is the very first special exhibition to be held in Korea on the theme of Japanese ceramics.
- 10 **Gwangju National Museum News**  
The Fourth Exhibition of *100 Years of the Republic of Korea: 10 Episodes that Changed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100<sup>th</sup> anniversary of the March 1<sup>st</sup>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Gwangju National Museum presents the fourth exhibition of *100 Years of the Republic of Korea: 10 Episodes that Changed History*. The exhibition highlights the Korean War and the April Revolution among major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1950s and '60s. It is hoped that the exhibition will convey the spirit of the time in which hope and confidence was rebuilt in the midst of pain and chaos and thereby awaken the audience to the values of peaceful reunification and democracy.  
Special Exhibition *Korean Traditional Painters in the Modern Era, Honam and Seoul*  
Gwangju National Museum presents *Korean Traditional Painters in the Modern Era, Honam and Seoul* to reexamine traditional painting in the modern era as a tribute to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The exhibition showcases works by traditional painters who were active in Seoul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opening of ports to foreign countries for trade and exchange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cluding Jo Seok-jin, An Jung-sik, and Kim Eun-ho, alongside works of the contemporaries of the Honam region, including Chae Yong-sin, Huh Hyung, and Huh Baek-ryeon.